

---

# 제1차 WCPFC 열대 다랑어 워크숍 참석 결과

---

2021. 4.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해외수산업협력센터

# I 회의 개요

□ **회의명** : 제1차 WCPFC 열대 다랑어 워크숍\*

\* 영문명 : Development of New WCPFC Tropical Tuna Measure Workshop 1

□ **회의 목적**

○ WCPFC 열대 다랑어 보존관리조치(CMM 2020-01) 개정 논의

□ **일시/장소** : '21.4.26.(월)~4.30.(금)\* / 화상회의

\* '21.4.28.(수) 휴회

□ **참석자**(약 200여명) : 한국, 미국, FFA, 일본 등 WCPFC 회원국 및 NGOs, 업계 등 대표

○ 해양수산부 대표단

이름	기관 및 직위	비고
김정례	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	회의 의장
나일강	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	수석대표

\* 수과원, FMC, 업계 및 원양협회 자문으로 참석

○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석자 : 원태훈 전문관, 김수민 전문관

□ **주요 의제**

○ 가, 눈, 황다랑어 현 자원 현황 발표

○ 신규 보존관리조치 관리목표 및 범위

- 어업 별 관리 균형

- 관리 기준년도(baseline period)

- 관리목표를 위한 사회경제적 요소 고려 여부

## II 주요 논의

### 1 관리목표(Management Objectives)

#### □ 관리목표 기준년도(baseline period)

- (가다랑어) FFA는 '12년이 자원량과 경제적 수치가 균형이 이룬 해라고 주장하며 관리목표 기준년도로 제안
  - 이에 EU는 '12년도 기준 설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제안임을 지적하며 반대하였고,
  - 우리나라도 '10년 공해어장 폐쇄로 '10~'13년 선망어업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,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은 관리년도로 부적절함을 설명하며 반대하였으며,
  - 이에 더해 '10년 직전 3년인 '07~'09년의 기준년도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SPC에게 본 기간에 대한 MSY 및 자원량 분석을 요청
- (눈다랑어) 현행 눈/황다랑어 관리목표는 산란 자원량을 '12~'15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
  - FFA는 현행 관리목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, '12~'15년은 SC의 눈다랑어 관리 조언에 따라 결정된 기간임을 강조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
  - EU는 '12~'15년에 대한 SC 조언이 지난 몇 년간 자원 평가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'12~'15년도에 대한 신뢰도를 반박
- (미국의 LPR 기반 관리목표 제안) 미국은 LRP만 채택되어 있는 눈/황다랑어의 경우, LRP 초과율에 기반하여 관리 목표를 설정하지는 제안을 하였고,
  - 적정 LRP 초과 위험률(risk of breaching LRP)만 충족한다면 '12~'15년 기간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,

- 일본과 FFA, 중국 등 국가들은 미국의 LRP 기반 관리목표 제안이 사회경제적 요소는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자원만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며 본 제안에 반대

## □ 어업 별 균형

- 회원국은 열대 다랑어 보존조치의 어업 별 관리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는 총의를 이루었으나,
  - 현행 보존관리조치(CMM2020-01)의 균형 존재 여부와,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
- FFA는 현 조치가 어업 별 균형이 잘 맞춰져 있으며, 조치가 개정 될 때 본 균형을 유지하여 한다고 주장하였고,
  - 선망 대비 상대적으로 공해 감시가 느슨한 연승 규제를 강화하여 규제 강도의 균형을 맞춰야 함을 주장
- 우리나라와 미국, 대만\* 등 국가는 연승 눈다랑어 한도 증가를 통해 선망과 연승 조업기회의 균형을 맞춰야 함을 피력

\* 연승 눈다랑어 관련 우리나라, 미국, 대만 의견

국가	의견
한국	(1) 현행 조치의 선망-연승 균형은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, 선망어업의 공해-EEZ 조업기회에서 불균형 존재 (2) 현행 관리목표에 따라서도 조업기회 증가 가능
미국	(1) 선망-연승 균형 재설정 필요 (2) 현행 관리목표 하에서도 조업기회 증가 가능하다는 한국에 동의
대만	연승 조업국들은 눈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해 많은 희생하였으니, 자원 회복과 함께 보상 받아야 할 것

- 이에 대해 일본은 협약수역 눈다랑어 자원량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을 상기하며 어획한도 증가에 반대하였고,
- FFA는 자원 상태에 따르면 어획한도 증가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으나, 최신 눈다랑어 자원평가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예방적 조치를 이어나가야 함을 주장

## □ 사회경제적 요소

- 관리목표에 사회경제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에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으며,
  - 인도네시아, FFA 등은 관련하여 협약 제5조, 제10조, 제30조\* 등을 사회경제적 고려를 위한 기반으로 제시
    - \* 협약 제5조(보존관리조치 원칙), 제10조(위원회 기능), 제30조(개도국 특별요구사항 인식) 모두 연안국 및 개도국(SIDS)의 권리와 특별고려를 규정
- (연승 CPUE) 사회경제적 요소 관련하여, 일본은 협약수역 내 모든 어업과 전체 협약수역을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고,
  - 협약수역 내 연승 눈다랑어 CPUE가 하락하며 자국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며 CPUE도 사회경제적 요소로써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,
  - WCPFC 남방 날개다랑어 TRP 설정 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하였음을 상기하며 눈다랑어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길 제안하였으나,
  - EU는 CPUE가 한 가지 proxy로써 유용할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요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, 눈다랑어와 날개다랑어를 같은 선상에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
- 일본의 연승 CPUE 관련 의견에 대해, 미국은 협약수역 내 수역 별로 어업 압력과 자원상태가 다르므로 수역 별 맞춤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,
  - 이에 대한 제안서를 준비하여 차기 워크숍에서 논의 예정

## 2 관리 범위(scope)

### □ 신규조치 범위 논의

- (FFA 제안) 현행 CMM2020-01 관리 범위\*를 그대로 유지 희망
  - \* (1) 기간 : 3년(매년 검토), (2) 수역 : EEZ + 공해, (3) 어종 : 가, 눈, 황

- 본 제안에 대해 중국, 대만, 일본 등 국가들의 지지가 있었으며, 이외 반대 의견은 제기되지 않음
- (우리나라 범위 의견) 우리나라는 관리 범위와 관련하여 현 조치의 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규제와 관리가 모든 국가들에게 공히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
- EU는 우리나라의 예외조항 의견에 동의를 하였으나, FFA 회원국들은 예외조항을 범위와 별개 사안으로 취급하며 본 논의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
- 예외조항은 추후 논의 예정
- (논의 결론) 개정 조치 범위는 FFA 제안에 따라 현행 조치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

### 3 향후 계획

#### □ 2차 워크숍 일정

- (개최 시기) 7월 말 ~ 8월 중
- (회의 방식) 1차 워크숍과 동일한 진행방식에 잠정 합의

분류	결정 사항
형태	화상회의
요일	월~금(수요일 휴회)
시간	미정